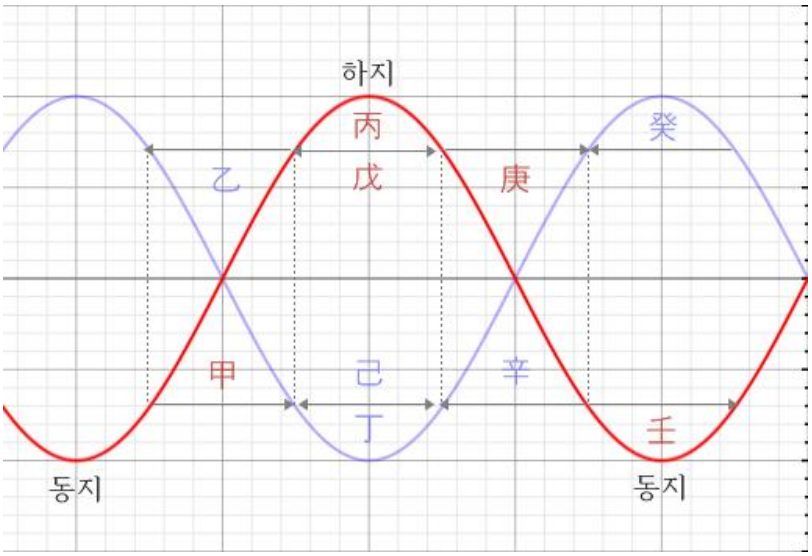
☯ 천간합은 명리 기본이론인데, 왜 甲은 己와 합하는 것일까요?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사인함수에서 생각해 봅시다. 빨간색 사인파가 나타나면 음양의 법칙에 따라 정확히 동시에 파란색 사인파(음)가 반대편에 태어납니다. 태양의 고도가 동지를 지나 입춘에 이르면 이때부터 봄기운인 甲이 지배하는 구역이 됩니다. 음·양은 시간이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음간乙은 양간甲과 반대방향에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봄이 2,3,4월이라고 했을때 甲의 시각에서는 2월→4월로 갈수록 양의 기운이 강해져 甲이 성장하는 것이고. 乙의 입장에서는 4월에서 시작하여 2월로 갈수록 음의 기운이 커져 乙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리학에서는 3개월 봄의 기간동안 갑목은 순행하고 을목은 역행한다고 합니다. 특정 시점 예를 들어 2월 기준 갑목은 아직 양의 기운이 작고, 을목은 음의 기운이 최대인 것이고. 특정시점 4월에서 보면 갑목은 양의 기운이 커졌고, 을목은 음의 기운이 작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태극이 회전하는 음양의 이치입니다. 음양의 세계속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으며, 멈춘적도 흐른적도 없고, 오직 음·양이 서로 반대편을 보고 질주하며 우주는 태어난 적도 팽창한 적도 없이 영원히 그대로 있으며,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상의 변화는 음·양의 교차와 회전일 뿐인 것이죠.

戊의 기간동안 빨간 그래프의 모양을 떠올려 봅시다. ⌒모양인데, 이것은 癸와 모양은 같고, 색깔은 반대입니다. 癸도 ⌒모양이면서 파란색입니다. 무/계는 궤적과 진행방향이 동일하고 phase shift가 180도 만큼 벌어져 있는 음양합의 관계입니다. 정임합은 丁⌣ 壬⌣로 궤적은 동일하지만 진행방향이 반대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천간합을 정리해보면.

	궤적	진행방향	phase shift	결합강도(이론)	운동묘사
무계合	동일	동일(左)	180도	5 (5음5양)	하지동지, 양자중첩
정임合	동일	반대	180도	4 (4음4양)	
을경合	동일	반대	180도	2 (2음2양)	춘분추분, 양자중첩
병신合	다름	반대	x	3 (3음3양)	음양쌍생, 양자얽힘
갑기合	다름	동일(右)	x	1 (1음1양)	음死양生, 양자요동

庚의 모양은 ㅣ이며, 乙도 모양은 ㅣ로 같고 진행방향은 반대입니다. 을경合은 무계/정임처럼 궤도가 같고 180도 phase shift 관계이나 진행방향은 반대입니다.

요약하면 무계/정임/경을은 궤도모양이 각각 동일합니다. 음양세계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180° phase shift했을때 같은 궤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우주공간에 음양으로 양자중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丙·辛의 움직임을 연결시켜보면 마치 업스핀/다운스핀처럼 한점으로부터 음·양이 태어나서 서로 반대편으로 다른 궤적을 그리니 양자얽힘입니다. 甲·己를 연결시켜보면 음이 붕괴되는 자리에서 양이 생겨납니다. 극도의 진공상태에서 관찰되는 음死 양生의 양자요동(vaccum fluctuation)[34]입니다.

戊 ㅂㅍ	[v] ㅸ [f] ㆄ	合火(따뜻함)	갑 기 土	合木(따뜻함)	ㄴㆆ[N] ㄹㆆ[R] ㄴㅇ[ɲ] ㄹㅇ[ɬ]	ㅇㅎ 壬
癸 ㅇㆆㅎ						ㄴㄹㄸ 丁
丙 ㄷㅌ	[ɖ] ㄶ [t] ㄸ/ㅌ	合水(차가움)	기(긊)	合金(차가움)	sh ㅅㅇ zh ㅈㅇ ch ㅊㅇ	ㅅㅈㅊ 庚
辛 ㅿㅆㅉ						ㅇㄲ 乙

훈민정음에서 천간합이 만드는 자음조합들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무계/정임/을경처럼 같은 모양의 궤도를 도는 合(같은 공간에 존재)들은 ㅸㆄ ㄴㆆㄹㆆㄹ ㅅㅈㅊ+ㅇ처럼 연서/병서되어 붙어있으며. 그 중 진행반향이 반대인 정임/을경은 ㄴㅇㄹ/ㄱㄴㄹ와 싀즤츼/싀즤츼처럼 순서에 따른 발음차이도 만듭니다. 궤도모양이 다르면서(좌표공간이 이격됨) 음양쌍생(양자얽힘)관계인 병신합과 음사양생(양자요동)관계인 갑기합은 조합자음이 ㄶㄸ와 긊처럼 같은 자리에 합용병서하지 않고, 초성/종성에 나뉘어 표기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만 을경합(합력2)에서 이미 ㅇ의 형태가 붕괴하고 있음으로 병신합(합력3)에서도 일부 형태붕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ㄶㄸ 자체는 d/t에 권설r이 섞인 [ɖ][t]발음이기에 그리스語/영어/아랍어에 존재하는 ð/θ(치조마찰음)의 조음점에 근사(近似)하는 표기는 아니어서 을경합(ㅇ)/ 갑기합(ㅁ)이 붕괴했던 것과 같이 ㅿ의 붕괴형태를 찾아야 합니다.

갑기합은 병신합과 마찬가지로 궤적이 다르고, 己(ㅁ)가 다해서 사라진 자리에서 甲(ㄱ)이 나타나니 ㄱ을 초성에, ㅁ을 종성에 넣어 표기하는데. 극도의 진공에서 관찰된 입자가 사라졌다가 빈공간에 다시 입자가 나타나길 반복하는 음死양生의 진공요동처럼, 그리스語 Γ(gamma)[35]의 발음 [ɣ]은 일관성 없이 단어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여린 ㄱ으로서 ㅁ은 표기하기도 안하기도 애매하고, 긊로서 단어에 따라 그↔기 를 오갑니다.

---

34) 진공상태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창조와 소멸의 현상이다. 공간이 진공이 되면 가상의 (+)소립자와, 가상의 (-)반입자가 생성되고 그와 동시에 서로 만나 소멸한다. 소멸하기 전까지는 엄밀히 말해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존재와 상호작용할 만큼 긴 시간도 아니고, 출현하자마자 바로 소멸하니 엔트로피 법칙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또한 양자 출현의 출처가 완전한 '無'에서 이루어졌는지 진공 상태의 공간에 있는 중력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35) 본래 [g] 발음을 나타내는 글자였지만 오늘날 그리스語에서는 국제음성기호로 [ɣ]이라 하여 'ㅎ'에서 성대를 울리는 소리로 발음하고, ε, ι 앞에서는 [j]가 된다. 또한 νγκ, γγ에서는 ng 발음이 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그리스 음식 γύρος 같은 것은 유로스, 기로스, 이로스 등 다양한 표기가 공존한다. [Γ - 나무위키]